

관람 안내

관람시간

오전 9:30 ~ 오후 5:30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전시장소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1

관람료

무료

ARTS AND JOYS IN EVERYDAY LIFE

일상의
흥과 풍류

찾아오는 길



(우)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896-1)

Tel. 063-280-1571

www.nihc.go.kr

일상 日常의 흥과 풍류

자연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고 그 변화무쌍함은 희로애락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께 제의祭儀를 올리며 마을과 가정의 안위를 바랐고,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겨움을 잊고 풍요를 기원하였다. 때로는 노래와 악기 연주로 자연에 감사드리고 다음의 노동을 준비하였다.

우리 민족은 다채로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흥과 풍류를 잊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흥과 풍류는 오늘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문화·예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상설전시실1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우리 전통공연과 예술,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등을 살펴보는 공간이다.

ARTS AND JOYS IN EVERYDAY LIFE

While Mother Nature has provided the basis of all our living, her caprice has also incited various human emotions. Koreans have tried to convert the harshness of labor into the joy of having fun together, and devoted heart and soul into holding ritual ceremonies together. Throughout the ages, the Korean spirit for art and joy has developed into valuable forms of art and culture, which still contribute to enriching our life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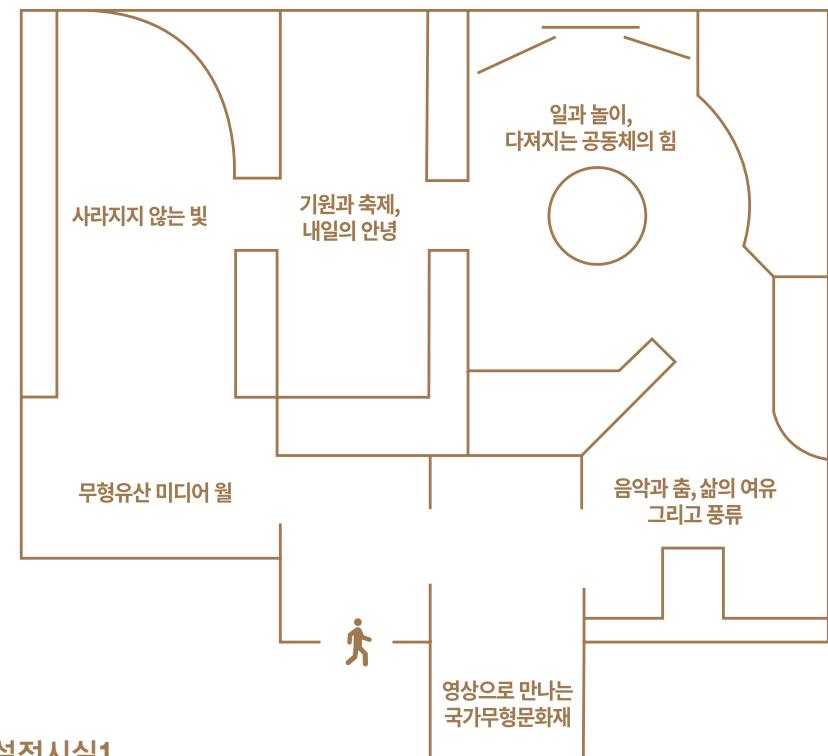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 · 예술, 의례 · 의식, 전통놀이 · 무예, 전통지식

국가무형문화재는 변화무쌍한 자연과 시대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여유와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일부는 꾸준히 전승되었으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고유의 모습이 훼손된 채 소멸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광복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도가 성립되었다.

전통공연 · 예술	노래, 동작, 대화 등으로 표현되는 전통 음악, 춤, 인형극 등
의례 · 의식	국가 · 마을 · 가정의 안위를 위해 특정한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펼쳐지는 제례나굿 등
전통놀이 · 무예	세시 명절이나 절기를 맞아 행하는 놀이나 축제, 기예와 무예 등
전통지식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발달시켜 온 다양한 지식과 기술 등



상설전시실1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風流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나 보람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을 노래나 악기 연주, 춤 등으로 표현했고, 때로는 이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 풍류는 세속을 잊고 즐기는 행위를 넘어 삶의 희로애락을 예술로 승화하고자 한 우리 민족의 여유를 보여준다.

이리향제줄풍류 총보

1991년 |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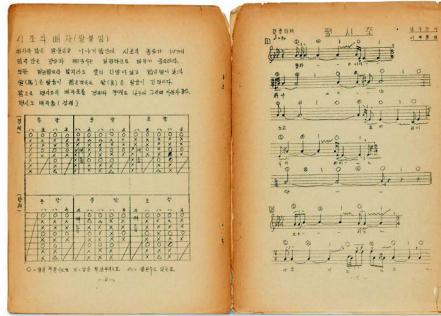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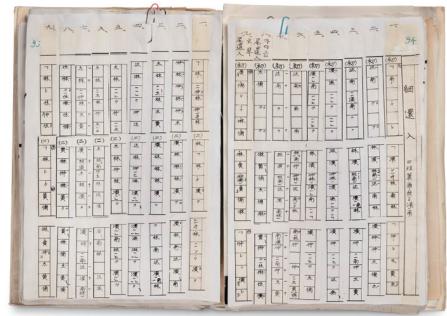
작고보유자 강낙승이 이리향제줄풍류 악기 각각에 대해 정간보로 엮은 악보집이다.



가곡 초보 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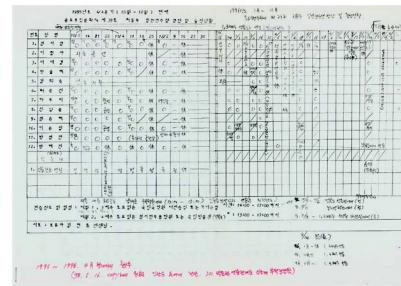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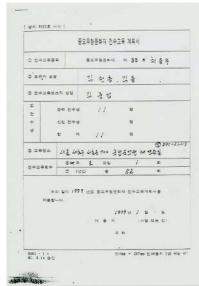
1970년대

가곡 작고보유자 이주환이 친필로 작성한 원고와 악보를 등사한 책이다.



처용무 전승 관련 서류

20세기



작고보유자 김천홍이 처용무의 전승 맥락을 기록하기 위해 모은 자료들이다.



소리북

2017년

판소리 연행 때 고수鼓手가 사용하는 북이다.



승무 의상

20세기

작고보유자 이매방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승무 연행 때 착용하던 복식이다.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

우리 민족은 농한기나 정월대보름·단옷날 같은 특정한 때가 되면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다. 전통 사회의 놀이는 오늘날 마을 공동체 축제의 근간이 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기약한다.



동래야류 말뚝이탈
2016년 | 동래야류보존회



양주별산대놀이 말뚝이탈
1989년 |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영산줄다리기 줄
2021년 | 축소 복제



기지시줄다리기 줄
2021년 | 축소 복제



평택농악 무동 의상
20세기 | 평택농악보존회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무동舞童이 착용하는 복식이다.



이리농악 부포상모
2010년 | 이리농악보존회

타조털로 만든 부포가 달린 상모이다.



구례잔수농악 조리중 의상

1980년대 | 구례잔수농악보존회

집안의 액을 바랑에 담고 조리로 복을 긁어주는 조리중이 착용하는 의상이다.



임실필봉농악 대포수관

2021년

농악패 잡색을 지휘하는 대포수가 착용하던 모자이다.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

사람들은 일상이 무사히 영위되기를 바랐다. 노동의 결과가 풍요롭기를 소망하였고, 천재지변과 전염병 앞에서 개인, 가정, 마을의 안위를 기원했다. 이러한 간절함을 모아 의례·의식을 행하며 신을 위로하였다. 의례·의식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축제가 되었다.

강릉단오제 세zon구 의상

2000년대 | 강릉단오제보존회

풍년을 비는 세zon구를 연행할 때 무녀가 착용하는 복식이다.



강릉단오제 성주상

20세기 | 강릉단오제보존회

집을 관장하는 성주신에게 식구들의 안위를 기원하며 차리는 성주상이다.



강릉단오제 놋동이

20세기 | 강릉단오제보존회

나라와 마을을 지켜준 장군들을 위로하는 군옹장수굿을 연행할 때 사용하는 놋동이이다.



위도띠뱃놀이 띠배

2021년 | 축소 복제

제의가 끝난 뒤 허재비와 함께 마을의 재액을 실어 바다로 띠나보낸다.



위도띠뱃놀이 허재비

2021년

위도띠뱃놀이에서 띠배에 태워 마을의 재액을 갖고 떠나는 역할을 한다.



해녀 물옷

2016년

해녀가 물질할 때 착용하던 전통 의상으로 물적삼, 물소중이, 물수건으로 구성된다.



해녀 고무옷

1970년대

해녀가 오늘날 물질할 때 착용하는 고무옷이다.



테왁 망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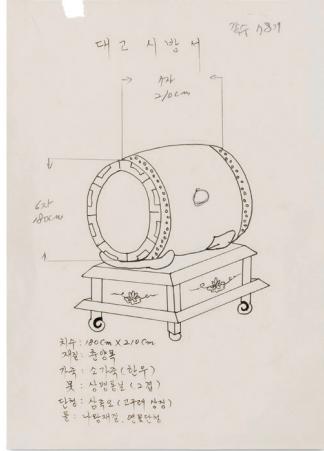
1980년대

테왁은 해녀들이 해엄쳐 이동할 때 물에 뜨게 하는 도구이고, 망사리는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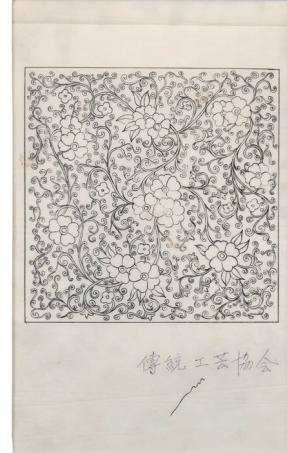


사라지지 않는 빛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며 계승해 온 국가무형문화재 작고보유자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다. 보유자들은 전통을 잇는 한편 기술과 기예를 남다르게 표현하여 우리 전통문화가 오늘날 더욱 풍요롭게 빛날 수 있도록 했다.



악기장 고故 윤덕진의 대고 大鼓 시방서 示方書
20세기



나전장 고故 김봉룡의 도안
20세기



경기민요 고故 안비취의 장신구
20세기

승무 고故 이매방의 고깔 20세기



갓일 고故 김봉주의 통영 갓
20세기



매듭장 고故 정연수의 색동딸기기술
20세기



국립무형유산원이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다양한 주제로 탐색해 볼 수 있고, 무형유산을 매개로 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강령탈춤·학연화대합설무·복청사자놀음 미디어아트



정보 검색